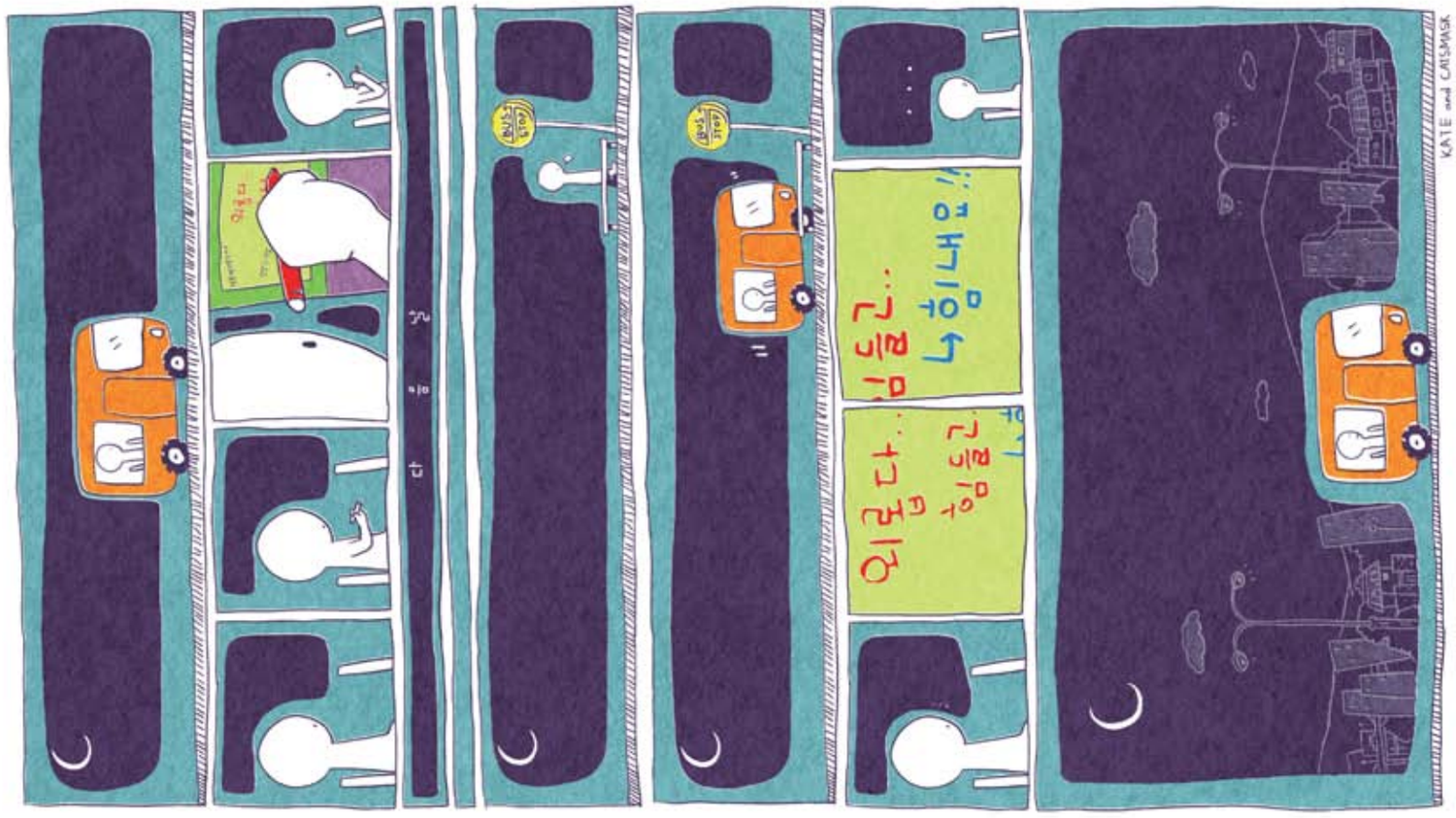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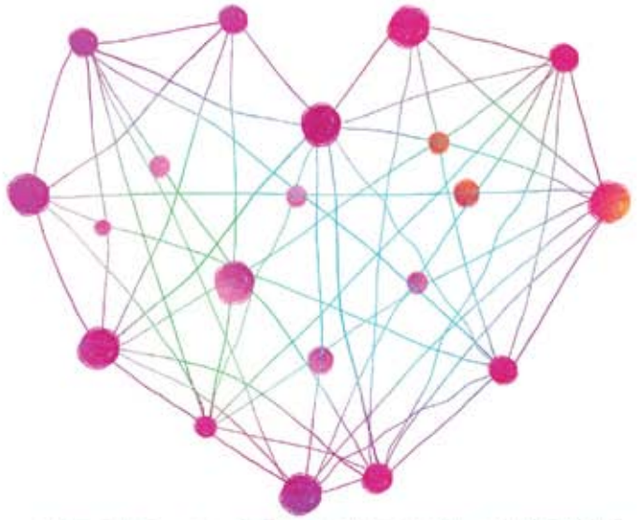
Happy Suwon

Carpe Diem 2009

수원시자살예방센터
Centre for Suicide Prevention


KATE and CATSMASK

Carpe Diem



카르페 디엠 Carpe Diem은 '현재를 사랑하고 즐기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저 바라보면..음~'
이런 CM song이 있기는 하지만, 말없이 얼마나 온전히 전달될 수 있을까요?
상대가 저처럼 둔한 사람이라면 눈빛만 계속 보내서는 느끼하거나
이상한 사람이라고 피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말을 한다 해도 상대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는다거나,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판단일 때도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번 Carpe Diem은 세련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귀여운 소통방법으로 감정을 표현한 도장 스티커를 만들어 봤습니다.
부디 Carpe Diem을 읽는 유익함에 더해
마음을 나누고 이해하는 즐겁고 재밌는 표현수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범적으로다가 지금 저의 감정상태를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ㅡ_ㅡ

carpe diem 2009

Contents

6 그들의 자살보기
소설 "마지막 인사"를 통해 들여다본 존엄한 죽음 그리고 삶

8 우리들의 자살보기
보고 싶은 내 친구에게

터놓고 말하기

12 청소년 좌담회
사람은 무얼 먹고 살까요?

18 자살을 이겨낸 사람들
내 얘기 들어볼래요?

20 길고도 짧은 인터뷰
사람들의 마음을 품고 사는 남자, 화성시정신보건센터장 전준희를 만나다

제대로 보기

24 자살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젊은 베르테르는 베르테르 효과를 알고 있을까?

26 시론
삶과 죽음의 세가지 유형 - 뚤스또이의 〈세 죽음〉을 중심으로

32 미디어 속의 자살보기
크게 라디오를 켜고 영화 '솔로이스트'

뿌리치기

38 스트레스 대응하기
뭐라도 하면 안 우울해! 그녀의 일기

42 놀아줘!
꿈을 향해 하이킥!

44 남겨진 사람들
살아있는 커트 코베인의 그림자, 코트니 러브

46 고민과 상담
너의 얘길 들려줘!

48 Help Network

50 Teens in csp

Carpe Diem 2009 청소년 자살예방홍보지 통권 제6호
발행간기 연간 | **발행일** 2009년 12월 31일 | **발행인** 이영문 | **발행처** 수원시자살예방센터 |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 134-3 Happy 마음터 3층 | **전화** 031-228-3279 | **홈페이지** www.csp.or.kr | **기획편집** 권선영 서청희 백민정 오경효 이고은
일러스트 catsmask | **디자인** E&T Communications | **인쇄** 밝은아침 명조

*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을 전재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때는 수원시자살예방센터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시자살예방센터는 수원시 장안구 보건소 지역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녕 친구!
오늘 나는 너에게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할 거야. 아니, 무거운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어.
그건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어슬렁거리고 있었으니까.
늘 있어왔는데 어쩌면 너와 내가 낯선 사람 대하듯 멀리 보내버리려고 했을지도 몰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죽음이야.
자살도 아니고, 뭣도 아닌 그냥 죽음. 그 자체야.
넌 죽음에 대해 생각해봤니?

언젠가 사람은 죽는다고 하더라. 물론 나도 그걸 알지만 여전히 믿지는 못하겠어.
할머니의 죽음을 지켜보면서도 '언젠가 나도?' 라고 생각해보면 쉽게 그림이 떠오르지 않아.
하지만 할머니의 죽음을 접한 이후로 '난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 만일 죽게 된다면 어떻게
죽는 게 좋을까?' 에 대해 생각해보곤 해.

내가 좋아하는 소설 해리포터에서 해리와 루나는 다른 친구들이 보지 못하는 이상한 동물을 보게 돼.
그들의 눈에만 보이는 거지. 왜냐하면 그 동물은 죽음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눈에만 보이게
되어있으니까. 죽음을 접하는 경험을 하는 건, 그전까지 알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것이
열리는 것과 같은 게 아닐까?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읽었어.
그리고 많이 울었어.
처음엔, 책 속 사람들이 세상과 이별하는 방식이 애달파서 울었고,
두 번째엔 언젠가 이별하게 될 내 세상의 사람들이 떠올라서 울었어.

있지, 그런 거 있잖아. 존엄사라는 거. 넌 그게 뭔지 아니?
난 이번에 이 책 '마지막 인사'를 읽고 새롭게 생각해보게 됐어.
존엄사는 말이지, 스스로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죽음이래.
죽음을 선택한다? 존엄한 죽음? 좀 어렵기도 했어. 참깐 줄거리를 알려줄게.

주인공인 진호는 의사야. 주로 암 환자를 다루며 환자들의 마지막을 많이 지켜보았지.
결정적으로 진호는 그의 부인이 암으로 사투를 벌이는 모습을 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지막 인사〉 지은이 **이건영** / 발행년도 2009년
- 짤막한 지은이 소개
1945년생.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했지만 중퇴하고 건축과에 다시 입학. 건설부 차관, 국토개발연구원 원장,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등을 역임. 1965년 한국일보 창간 10주년 기념 장편소설 공모에서 〈회전목마〉로 당선되었으며 이 소설은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됨.그 밖에 〈차가운 강〉, 〈빙하의 계단〉, 〈회색이 흐르는 거리〉, 에세이집, 도시공학 관련 연구서들이 있음.

소설 "마지막 인사"를 통해 들여다본 존엄한 죽음 그리고 삶

글_ 백민정 (교육부)

자신의 무력감,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부인의 안타까운 모습들 속에서 그녀를 더 이상 고통 없이
평안하게 삶에서 놓여날 수 있게 하기 위해 안락사를 선택해. 이후, 더 이상의 생명연장을 위한
처치가 불필요하고 오히려 환자의 마지막을 더욱 힘겹게 하는 경우에 그는 다시 한 번 그들의
존엄적인 죽음의 선택을 돕게 되지.

네가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존엄사 혹은 안락사는 불법이야.
사람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며 또한 그 선택을 돕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거야.
진호도 이로 인해 법의 처벌을 받게 돼. 그러던 주인공은 자신에게 암세포가 퍼져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 이상의 치료가 도움이 되지 못함을 느끼면서 그동안 자신이 아내에게, 환자들에게
해온 것처럼 스스로의 죽음을 선택하게 되면서 소설은 마무리가 되었어.

친구!
사람에게 죽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있는 걸까?
태어남을 선택할 수 없으니 죽음은 선택할 수 있는 걸까?

난 이런 생각을 해봤어. 죽음이란 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잖아.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해.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자살도, 합리화될 수 있는 걸까?
글쎄. 난 모르겠어. 머릿속이 복잡해. 내가 답을 가지고 있진 않아.
하지만, 분명히 떠오르는 생각 하나는, 죽음이란 건 늘 우리의 곁에 존재하는데 우린 그걸
너무나 낯설게만 생각한다는 거야. 어찌되었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 존엄사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그 아팠을 마음, 난 그런 걸 너와 나누고 싶었어. 죽음, 그것이 말하는 많은 것들, 아픔이
느껴지기도 하고, 훨훨 날아가는 자유로움과 동시에 허무가 느껴지기도 해.

그들과 나는 다르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 나도 그들인 걸. 나도 때론 죽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드는 순간을 경험하는 걸. 죽음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걸.

친구,
사람들마다 각자의 마지막 인사는 다르겠지만, 그것이 아픔이지 않게, 눈물이지 않기를 바랄뿐이야.
인사하는 거잖아. '안녕' 이라고.

보고 싶은 내 친구에게

야! 생각나? 그날도 우리는 여자애들처럼 수다도 떨고, 친구들도 씹고, 앞에 앉은 놈 뒤통수 머리가 떴다고 놀려댔었잖아. 보기 싫은 기말시험에 대해 얘기도 했었지, 학원 땡땡이 치고 매운 떡볶이 먹으러 가자는 얘기도 했잖아.

사실, 니가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었어. 널 짜증나게 하는 놈들이 있다는 것도,
바쁜 부모님과 대화할 시간이 없는 것도... 전부.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나도, 민수도, 다른 애들도 대부분 비슷할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니가 더 힘들어 하는 줄 몰랐던 거야. 이런 내가 짜증난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너랑 같이 학원 다니던 길, 같이 먹던 떡볶이 집... 니 책상, 니 의자, 모두 그대로다.
근데 넌 왜 없냐? 너 말고 다른 애가 앉아 있잖아. 짜식아.
짝이 바뀌고 니 생각이 잊혀져 가는 것 같아서 더 미안하다.

니가 죽었단 말을 엄마한테 들었어. 난 니가 학원에 안 와서 너한테 문자 보내며 화를 내고 답문이 안와서 짜증냈는데 그날따라 일찍 들어온 엄마가 그러는 거야. 놀라지 말라고.
말이 돼? 조금 전까지 마주 보고 이야기했었잖아. 근데 지금은 없대.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니가 사는 곳은 어때? 잘 지내지? 이제는 힘들었던 니 마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지?
우린 이제 졸업이야. 너와 함께 했던 교실, 학교... 멀어지는 거야.
너랑 같이 하고 싶고, 가고 싶은 곳들이 많았는데...
우리 짜증나는 일 있을 때마다, 꼭 커서 같이 살면서 여행하고 싶은 곳 정해서 다니기로 했잖아.
민수가 좋아하는 그 누나랑 사귀는 형도 같이 괴롭히기로 했잖아. 니 주먹이 제일 아플 거라고 민수가 그랬잖아. 난 다 기억나는데, 넌 모두 잊은 거 아닐까.

사실 너한테 맘이 미안해. 그래도 베프라면 너하고 민수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나한테 말하려고 했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알아채지 못해서 너 혼자 간 것 같아.
니가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랬다는 게 믿어지지 않고, 내가 그걸 몰랐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웠어. 그때 말하지 못했던 그 말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있어서 날 힘들게 했던 것 같아.
니가 쉬고 있는 그 곳에 가서도 마음속으로만 외쳐댄 그 말을 이제는 하고 싶어.
친구야... 듣고 있니? 미안해... 그리고 보고 싶다.

이제는 누구와 친구가 되는 것이 두렵다. 전처럼 쉽게 가까워지고 마음을 나누는 게 무서워.
상처받을까봐 또 다시 내게 말도 없이 떠날까봐... 나 자신이 없다! 민수하고 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힘들다. 근데 지난번에 민수랑 니가 좋아하는 가수 얘기를 하면서 너랑 콘서트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할 때는 마음이 너무 시원하고 좋았어.
민수가 나보다 조금 더 용기 있는 것 같아.

니가 전에 말했듯이 우린 좋은 친구고 나중에 커서도 서로 좋은 기억으로 간직할 추억이 있어서 좋다. 니가 가고 싶어했던 그 가수 콘서트는 나랑 민수가 가서 더 신나게 놀고 올게.
우리 함께 가고 싶었던 곳에도 여행가서 마음껏 자유를 누려 볼거다. 그리고 다시 친구를 만나 새로 사귀게 되면, 너에게 가장 먼저 소개시켜줄게. 내가 결혼할 여자도 너한테 소개시켜 주고, 내 아이들도 너에게 인사시켜 줄게. 니가 살고 싶어 했던 행복한 인생... 내가 살아가 볼게.
그러고 싶어. 더 열심히 살아서 니가 살고 싶었던 세상에서의 삶! 내가 보여줄게. 지켜봐주라.
그리고 내가 힘들어하면 도와줘.

보고 싶은 친구야, 행복해라, 알았지? 또 연지 찍게. 안녕.

어느 겨울날 널 사랑하는 친구가

구성 · 각색_ 서청희 (상담부), 김진경 (자원봉사자)
* 이 글은 자살로 친구를 잃은 학생들과의 상담내용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청소년 좌담회 / 자살을 이겨낸 사람들 / 길고도 짧은 인터뷰 **터놓고 말하기**

사람은 무얼 먹고 살까요?

2009년 어느 여름날 밤,
제부도 모 펜션 백열등 아래 시끌시끌
아름다운사람지킴이9기 개구쟁이들이
모여 앉았다.
간단해 보이면서도 심오한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살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다.
처음의 작고 자신 없는 목소리에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조합한
말에 힘이 실리기까지
그 변화의 시간을 들여다보자.

좌장_ 백민정 (교육부)
정리_ 권선영 (홍보부)

참석자
백민정 Staff
오경효 Staff
서청희 Staff
권선영 Staff
이고은 Staff
고동휘 자원봉사자
유동혁 자원봉사자

옥호정	영복여중1
남현정	송 원 중1
장한옥	동 성 중1
어새봄	동 성 중1
황권능	삼 일 중1
김민구	대 평 중1
어수성	대 평 중1
심구진	정 천 중1
김정원	삼 일 중1
변형준	서 호 중1
추연우	창 룡 중1
어화영	원 천 중1
한지희	서 호 중1
신혜원	율 현 중1
김민수	서 호 중1
김동환	삼 일 중1
권영한	서 호 중1

밤을 달려 캠프 목적지에 도착한 지킴이들이 짐을 풀기가 무섭게 한자리에 빙 둘러 앉았다. 집을 떠난 자유로움을 제대로 맛볼 새도 없이, 좌담회의 좌장이자 통제담당 백민정 선생님의 목소리에 시선을 한 곳으로 모았다.

좌장: 여러분은 사람이 무얼 먹고 산다고 생각해요? · · · 밥? 무얼 '먹고'사느냐고 물었더니 머리 위로 말풍선을 달고 음식들을 떠올리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런 음식이 아니라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것, 살아갈 힘을 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한: 밥이요~ 밥을 안 먹으면 살 수 없어요.
한윤: 사람이요. 혼자서는 살 수 없으니까요. 외롭잖아요.
선영샘: 사랑이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좌장: 지금 얘기한 것들을 생각한 친구도 있고, 또 다른 것을 떠올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킴이들에게 종이 한 장과 필기구가 주어졌다.

좌장: 자, 지금 여러분 앞에 종이와 필기구가 마련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준비한 이유는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해 보기 위해서 그림으로 그려볼 거예요. 그림을 못 그린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뭔지 알아볼 수 없으면 말로 보충해서 설명하면 되니까요. 원하는 필기구를 이용해서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들의 작품과 설명은 이러했다.

좌장: 그림을 살펴보면 먹는 것도 있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자기가 그린 것을 소개해 볼까요?
민수: 과일을 그렸어요. 비타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요. 과일에는 비타민이 많이 들어 있잖아요. 제가 귤을 좋아해서 초대형 귤을 그렸어요.
정원: 저는 돈을 그렸어요. 돈이 있어야 필요한 걸 살 수 있으니까요.
동환: 밥을 먹고 있는 그림이에요.
화영: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빨간 하트를 그렸어요.
효정: 저는 공기를 먹고 산다고 생각해서 공기를 그렸어요.
좌장: 네~ 빽빽한 건물 사이에서 살려면 정말 공기가 필요하겠네요. 밥을 먹고 산다고 한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에 못지않게 사랑을 먹고 산다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다 여자이고, 연애 잘못하는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하셨네요. (ㅋㅋㅋㅋ)
저는 사람이 세월을 먹고 산다고 생각해서 주름진 할머니의 모습을 그렸어요. 사람들이 무얼 먹고 사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몇 그룹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제부터는 비슷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진 친구들이 모여서 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서로의 얘기를 들어보고,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얘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발표할 겁니다.

조별로 이동, 20분간 의견을 나눈 후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좌장: 선생님이 잠깐 둘러보니까 각 조별로 열띤 시간을 보내고 있던데,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지 참 기대가 됩니다. 어떤 조부터 발표를 해볼까요?

밥 조

규진: 저희가 먼저 할게요. 민규가 발표할 거예요!
좌장: 네, '밥조' 를 대표해서 김민규 지킴이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민규: 노인이 자살을 할 땐 밥을 굶어서 죽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데 왜인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친구는 다른 방법으로 죽는 게 무서워서 그런다고 했고, 어떤 친구는 그렇게 죽는 게 낫다고 했고, 어떤 친구는 노인이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에 굶어서 죽기를 선택한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은 따뜻한 밥 한 공기는 우울한 생각도 잊어지게 하고 살아갈 힘을 주기 때문에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 간다고 생각합니다.
좌장: 밥 한 그릇의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싶네요. 우리나라에 할머니, 할아버지 가운데 스스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뉴스를 들은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을 텐데, 할머니 할아버지 가운데는 굶어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대요. 안타까운 일이죠.
동환: 밥을 잘 먹으면 하려는 일도 힘차게 잘 할 수 있게 되잖아요? 단순히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이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자원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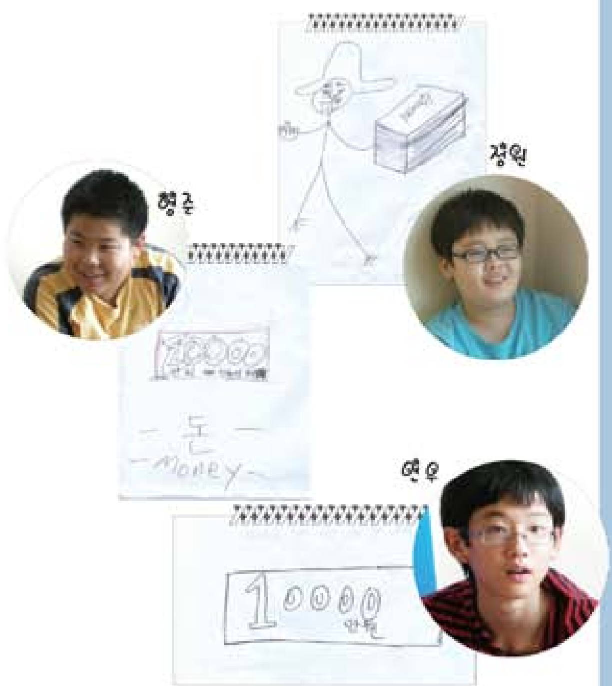
사람, 마음, 관심, 꿈 조

좌장: 다음 조는? '사람조' 가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아까 발표한다고 손을 들었었죠.
한윤: 저희 조는 하나의 의견만 선택하면 섭섭할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각자의 의견은 영한은 여러 사람, 혜원은 마음, 한윤은 관심, 고동희 선생님은 꿈이에요. 이 모두의 의견을 조합해서 '여러 사람이 관심을 갖는 마음으로 꿈을 갖자' 라고 하였습니다. 결론은 소중한 삶입니다. 멋있죠?
좌장: 여러 사람이 관심을 갖는 마음으로 꿈을 갖자?
경효샘: 좋은 말은 다 써놨네요.
좌장: 결론은 소중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관심이랑 마음이랑 꿈이 필요하다는 뜻이네요.
경효샘: 여러 사람의 관심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 꿈을 심어 줄 수 있다는 뜻도 될 수 있지 않나요?
혜원: 괜찮네요. 그걸로 할까요? *(ㅋㅋㅋ)*

행복, 공기, 웃음 조

좌장: 이번엔 어떤 조의 얘길 들어볼까요?
지희: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에 대해 저희가 생각한 것은 행복, 공기, 꿈입니다. 살면서 웃지 않으면 삶이 행복하지 않고, 5분이라도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고, 꿈이 없으면 삶이 허무해지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행복과 꿈입니다. 그 이유는 공기는 꼭 필요하고 사람이 존재할 수 있게 하지만 존재하는 것만으로 진정한 삶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 활력을 주는 행복과 꿈이 있어야 합니다.
좌장: 좀 어렵네요. 살아가는 데 있어 행복과 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왜 공기는 뺐나요?
효정: 공기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게 하는 데, 존재하는 것만으로 진정한 삶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뺐어요.
좌장: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생각이 바뀌기도 하죠. 토론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럼 행복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권능: "밥을 먹어요."
동혁샘: "웃어요"
규진: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수성: "돈을 주워요."
효정: "누굴 좋아하면 행복해져요" *(뭐~~~)*
동휘샘: 노력이 필요해요. 행복도 노력해야지만 가능해요.

돈좀줘~ 조



좌장: 이번 조는 제가 함께한 '돈좀줘조' 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준: 저희는 짧게 퍼포먼스를 준비했어요. 준비~ 하나둘셋넷 ~ 돈좀줘돈좀줘 *(환호)* 조이름은 '돈좀줘' 입니다. 우리 조가 생각한 것은 돈을 통해서 우리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돈이나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엔 시간도 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돈을 많이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력해서 버는 것과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좌장: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연우: 돈이 얼마나 있으면 어려움이 없을까 생각했는데 우리 조원은 10억이면 될 것 같고 모으는 데는 30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어요. 돈이 있으면 갖고 싶은 걸 다 살 수 있고, 갖고 싶은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음식이었어요. 음식 중에서는 감자탕을 가장 먹고 싶다고 했어요. 돈이 있으면 게임기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다고 했고, 돈이 있으면 뭘 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돈을 많이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과 잘 활용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결론이 었습니다.

사랑&과일조

좌장: 마지막 남은 조는? '사랑과 과일조' 인데, 사랑과 과일이 만나 무슨 얘기를 했을지 무척 궁금하네요.
현정: 사람이 사랑을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저희 조는 언제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받는 사랑에 대해 말한 친구가 많았는데요. 혼내시는 것도 관심과 사랑이 있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김민수 지킴이가 비타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과일을 그렸는데 사랑과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비타민도 사랑도 꼭 필요하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좌장: 사랑도 지나치면 독이 되나요? 해본 거 같네요. ㅋㅋㅋ
현정: 인형한테 집착한 적 있어요. 연예인도요.
좌장: 연예인에 집착하면 어떻게 되요?
화영: 자신의 사생활을 돌보지 않고 쫓아다녀요.
좌장: 지나치면 독이 된다, 마무리가 의미심장하네요. 고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은샘: 지나치고 싶어요. *(좌중 폭소)*

좌장: 각 조에서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내용을 하나의 결론으로 도출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각자가 생각한 것에서 공통점을 찾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얘기함으로써 생각이 변하기도 했어요. 한 가지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고,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나와 달라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유할 수 있는걸 찾아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배척하지 않고 공통점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좌담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 오늘 좌담회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인데 피곤하죠?
일동: 아니요, 이제부터 놀아야죠~~~

그들은 곧바로 즐길 태세에 돌입했다.

내 애기 들어볼래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최영순 선생님의 글은 고 박경리의 소설책 같다. 시대적으로 지금과 다른 오래전 사회 환경과 상황들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시간을 거슬러 지금의 얘기가 될 수도 있다. '불편하지 않은 것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리니 마음에 휘몰아치는 눈발을 만나지 않는다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리니' 라고 한 어느 시인의 글처럼 살아있는 우리 모두는 숙명처럼 시련을 겪기 때문이다.

글_ 최영순 (자원봉사자)
정리_ 권선영 (홍보부)

오랜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떠보니 사방은 차디찬 회색빛으로 침대 옆에는 작은오빠가 슬픈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순간 '내가 죽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그럼 나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참담한 심정이 들었다. 오빠에 대한 미안함으로 차마 얼굴을 쳐다보기가 두려워서 나는 눈을 감아버렸다.

1948년 화성군 안용면 오목천리 조그만 시골농촌에서 2남 4녀의 막내딸로 태어난 나는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부모형제의 따뜻한 귀여움 속에서 자랐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다음해 우리 집은 고향에서 조금 떨어진 마을에 방앗간을 차려 이사했다. 부모님은 늙으셨고, 큰 오빠는 올케와 나에게 일을 맡기고 정치와 여자에 마음을 빼앗기고 방앗간 일에는 소홀히 하였다.

그 시대의 부모들 중에는 딸은 상급학교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다. 학교를 안보내주는 아버지와 오빠를 원망할 줄도 모르고 집에서 일만하다가 나는 점점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작은오빠의 주선으로 서울에 있는 미용실에서 기술을 배우려고 취직을 했지만 숙식 해결을 못해 몇 달 만에 다시 집에 와야만 했다. 방앗간 일을 계속하며 지내다가 출가한 셋째언니의 도움을 받아 열여섯에 수원고려고등기술학교 양재과에 들어가 양재를 배우고 졸업 후 수원시내 양장점에 취직했다.

1년쯤 지나서 장래를 생각해보니 이대로는 내 마음 속 지식에 대한 갈망을 채울 길이 없어 보였다. 그길로 양장점을 나와서 세탁소에 취직하여 수선을 하며 저녁에 잠깐씩 시간을 내어 디자인과 재단기술 개인지도를 2개월쯤 받은 뒤에 세탁소를 나왔다. 이제는 양장점 공장에서 재봉사 밑에서 일하는 제자가 아니라 조그마한 양장점에 취직하여 내가 직접 재단, 디자인, 점원노릇까지 1인 3역을 하면서 기술과 경험을 쌓아갔다. 그 후에 수원, 인천, 대전, 논산으로 점점 커다란 양장점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게 되었고 양장점의 지식층 고객들과 대화의 폭을 넓히며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사회성을 직장생활을 하면서 배워갔다. 또 틈틈이 한문공부를 해서 아무도 내가 초등학교 졸업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 무렵 나는 건강에 힘든 고비를 겪게 되었다. 폐결핵에 걸린 몸을 계속 혹사시키니 피곤이 누적되어 결국 간 기능까지 나빠졌고 병원에서 영양주사를 맞으며 일을 하다가 직장 생활을 더 이상 못하게 되었다. 몇 년 동안 병든 몸을 이끌고 직장에서 번 돈은 치료비와 내 생활에 다 들어가고 모아놓은 돈은 없고 셋방살이하는 작은오빠와 셋째언니에게는 부모님 대신 신세를 많이 진 상태라 더 이상 기댈 수가 없었다. 큰오빠 집에 가면 아버지는 계시지만 병 치료를 해주지 않고 용돈도 주지 않아 올케와 함께 방앗간 일을 할 수밖에 없으니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요양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나는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약국을 돌아다니며 수면제를 사 모았다. 어리석게도 작은오빠 집에서 약을 먹었는데 이튿날 병원에서 깨어났다. 그 후에 수원과 서울로 자리를 옮겨가며 또다시 양장점에서 일을 하다가 1972년 목장을 하시는 시아버님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젖소 목장을 20년간 하는 동안 딸 둘을 낳아 키우며 나름대로 단란한 가정생활을 이루었다. 결혼 후에 폐결핵은 완치되었으나, 몸의 모든 기능이 약해져 병원에 자주 가고 허리디스크 수술을 사정이 있어 못하고 지내다가 다리가 마비되기도 했다. 그 뒤 척추수술을 두 번이나 하여 지금도 한쪽 다리 감각신경에 장애가 있다. 불편함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내가 충분히 감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어느덧 아이들이 자라서 가정을 이루고 나의 가정생활도 안정되었지만, 배움에 대한 갈망은 잠재울 수가 없어서 60살이 다된 나이에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얻어 2008년도 내 나이61세 환갑에 수원여자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수시로 합격되어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이다. 학교생활에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있으며 졸업 후에도 심리학공부에 계속 정진하여 전문상담가가 되고 싶다. 마음은 간절하지만 늦은 나이에 몸이 힘들어 더 이상 공부를 못할까봐 안타깝다.

가끔 어렸을 적, 약을 먹었을 때를 회상해본다. 자살을 하려했던 것이 큰 죄를 지은 것인 양 생각되어 대학에서 심리학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게 숨겼다. 하지만 그런 시도가 수치스럽거나 창피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었다. 그 시절 나로서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오다가 더 이상 이겨나갈 힘이 없어져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변명을 하고 싶어진다.

나는 지금도 가끔 내 몸이 힘들 때면 그때 일을 생각해보며 눈물을 짓는다. 그때 내가 죽었더라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들과 손자들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배움에 대한 성취감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힘든 삶만을 살다가 보람 없이 죽었을 것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한다면, 최선을 다해 살다가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겨낼 수 있는 만큼의 시련만을 주신다는 성경구절을 생각해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오늘밤에 꿈에서라도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 법의학을 공부하여 또 다른 삶을 살아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사람들의 마음을 품고 사는 남자,

화성시정신보건센터장 전준희를 만나다

글_ 오경효 (교육부)

오전 11시의 지하철역은 한산했다. 그리고 떨렸다.
평소 자상한 미소와 특유의 카리스마로 많은 여심은 모르겠으나 필자의 마음만은 분명히 휘어잡고 있는
그 분과 만나기 때문이었다. 언제나 그의 대답은 솔직하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솔직한 대답을 들으면 속이 시원해짐을 느끼곤 한다.
하지만 그의 솔직함에선 따뜻함이 묻어난다.

처음...

병원에서 만났죠.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랑 똑같이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병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대학원 진학을 위해 서울에 왔는데 내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것들이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태화 샘솟는 집에서 실습할 때, 회원과 실습생의 관계였지만 동등하고, 평등하게 인간의 권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 가치들에 공감했고, 정신보건의 길로 완전히 들어서게 됐죠.

맨 땅에 헤딩

서울시광역정신보건센터에서 일을 할 때 이은주(배우)씨가 자살을 했어요. 사회적으로 갑자기 이슈가 된 거죠. 자살예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지만 이론적인 기반이라든지 실무적인 기반이 하나도 없이 그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 했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맨땅에 헤딩' 했다고 얘기할 정도에요. 그 때부터 자살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자살

'죽고 싶다' 는 생각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는 것을 봤을 땐, 굉장히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음식을 먹는 거나, 욕심도 많고, 살면서 그런 고민 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죠. 어떻게 보면 저는 자살문제에 공감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본적인 자격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근데,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을… 무려 7년을 만났던 여자 친구와 헤어져서도 그런 생각은 안했던 것 같아요. 죽고 싶은 것도 하나의 문제해결 방법이잖아요. 가령, 여자 친구와 헤어졌을 때 '다른 여자 만나야지' 부터 '죽고 싶다' 까지. '다른 여자 만나야지' 밑에 '친구들이랑 술이나 먹어야겠다' ,'게임이나 해야 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다양하고 많은 방법들이 있는 것이죠.

따뜻한 커피

저는 기본적으로 상담하는 사람도 그렇고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안타까워 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자판기에 동전을 넣었는데 차가운 커피가 나오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상담하는 사람이 사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정말 세상은 살만해요' , '제가 선생님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차가운 커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커피를 주지만 열정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몸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커피를 주는 거죠.

왜 사세요?

저는 자살예방사업으로 '100사람 만나기 운동' 같은 걸 하고 싶어요. 죽고 싶을 때 100명의 사람을 만나 본 후에 결정하라는 의미에서요. "저도 선생님(상담을 요청하신 분)에게 있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 보세요." 다른 사람하고 나눴던 이야기를 하면서 또 상담을 이어가고 좀 더 인간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경험들을 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그 분들에게 아주 소중해요. 따돌림이나 무시당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사람에게 같은 사람으로서의 냄새가 나는 관계를 만들어주는 경험이잖아요. 그 경험을 잊지 못하시거든요.

내가 그 나이 때엔,

약간 소심하고 속 좁고, 애들 다 속 좁잖아요! 히~어밀건한 그냥 히마리~없는, 그런 친구였죠. 어떻게 보면 지금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직업이라서 학창시절에도 친구들에게 그랬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데, 학교 근근이 다녔죠. 가정에서 채울 수 없었던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어요. 학생이면 좀 공부를 하고 그래야 했는데, 교회생활에 너무 몰두해 있다 보니까 전도사님이 공부를 시키시더라고요. 아무도 제어하지 않으니까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요. 그때 한참 성직자의 말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영어독해 해 와라' 하면 해서 검사 맡고, '정석 풀어 와라' 하면 다 못하더라도 풀고, 책도 읽고,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형 같은 분들이죠. 공부는 그런 계기로 했던 것 같아요.

솔직한 존재

청소년들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너무 솔직해요. 그 나이 때엔 그래도 되는 때인 것 같아요. 마음껏 생각대로 해도 되는!

청소년센터에서 일할 때 '별의별 아이들을 다 만나 봤다' 고 하면서도 '원래 그래도 되는 나이' 라고 지긋이 미소 짓는 전준희 선생님. 굳이 소리 내어 '너희들 맘 다 알아' 말하진 않았지만 왠지 그 말을 들은 듯했다. 언제든, 어디서든, 마음 아픈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커피를 건네 줄 그가 있어 든든하다.

자살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시론 / 미디어 속의 자살보기 **제대로 보기**

선한 인간은 어두운 충동에 사로잡혀 있을 지라도, 항상 바른 길을 알고 있는 법이다.
괴테[Goethe, Johann Wolfgang von]

젊은 베르테르는 베르테르 효과를 알고 있을까?

글_ 백민정 (교육부)

읽어보았니? 독일의 문호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The Sorrows of Young Werther)' 말이야.
주인공 베르테르는 사랑하는 여인 로테에게 약혼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실의감과 고독감에 빠져
끝내 권총으로 자살을 하게 되지. 이 소설을 읽은 많은 유럽의 젊은이들은 주인공에게 공감하고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몰고 왔어. 급기야 베르테르를 자신과 동일시한 많은 이들은 자살까지 감행하는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발생했지. 유럽에서는 이 책을 금지시켰고 자살을 다룬 미디어가
자살과 관련된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어.
우리나라는 초강대국이야, 안타깝지만 자살률에 있어서 말이지.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귀에 어렵지 않게 들려오는 말들, 이를테면 세계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
국가 중 자살률 혹은 자살증가율 1위, 2위라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연예인이나
정치 · 경제인들의 자살을 뒤따르며 베르테르 효과 어쩌구저쩌구 많이 들어 봤을 거야.

베르테르 효과라는 건 정말 존재할까?

우리나라는 1997년 IMF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재정난과 가정위기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던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 이후로도 자살률은 꾸준히 증가했고, 해마다 사회적으로 유명한 혹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자살이 발생하면서 이들의 자살에 영향을 받은 다른 사람들의 자살로 인해
그 달(month)의 자살률 역시 증가한다는 결과를 가지고 베르테르 효과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어.
흔히 자살현상에서 베르테르 효과를 말할 때는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야.
이러한 현상이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올 정도로 급속히 증가하거나 그 파장이 적어도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했을 때 그를 동일시한, 그의 자살을 모방한
자살사고가 급속히 증가하고 또한 지속적일 때라는 것이지.
흔히 베르테르 효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자료들을 잠깐 소개할게.

〈유명인 자살시점에 따른 자살통계 비교,분석〉

이 그래프를 통해서만 본다면 유명인의 자살사건 이후, 자살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결론을 내려 볼 수
있어. 하지만 이러한 단순비교는 계절요인과 보도건수 그리고 정확한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측정오류를 피할 수 없다고도 해. 계절별 자살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봄에 자살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여름, 가을, 겨울로 가면서 자살자수가 감소한다는
기본적인 현상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

이런 건 어때? 유명인의 자살과 관련된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면
우울하거나 힘든 기분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해.
이건 자살뿐만 아니라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선전하는 모습에 영향을 받아 피겨 스케이팅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난 것도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다만 이러한 현상이 위에서
언급한 대로 3개월 이상 꾸준하게 영향을 받아 증가했다면
그것은 베르테르 효과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는 거지.

알고 있어? 자살은 최소한 6명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해. 그들의 가족, 친구, 동료 등등. 유명인들의 위
기는 자살이라는 결과로 우리들에게 나타났어. 이것은 유명인들의 자살이 모방자살이나 베르테르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무릎팍도사(?)와 같은 점괘를 기사화 하지. 전부인 것 마냥 말이야.
넌 얼마나 고민해봤니? 우리가 왜 살아야하는지,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이야. 모방자살? 베르테르 효과? 현상을 나타내는 단어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는 먼저 위기를 자발적
죽음으로 몰아넣는 '자살'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아야하지 않을까?
힘이 들고, 괴로우면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까지도 말이지.

다시 보자.
선한 인간은 어두운 충동에 사로잡혀 있을 지라도, 항상 바른 길을 알고 있는 법이다.
각자가 알고 있는 바른 길을, 우리 함께 나누어보지 않을래?

삶과 죽음의 세 가지 유형

- 똘스또이의 〈세 죽음〉을 중심으로

글_ 이병훈 (아주대학교 기초교육대학 교수)
정리_ 이고은 (교육부)

1. 들어가는 말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죽음은 생명의 본질이다. 생명 혹은 생명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종국에 가서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죽음은 생명체만이 직면할 수 있으며, 죽음에 대한 고려 없이 생명을 정의하거나 그 본질을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자면 죽음이란 생명을 지니고 있는 존재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다. 생명이 없으면 죽음도 없고, 죽음이 없다면 그것은 생명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죽음은 생명의 반의어가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생명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삶(생명의 연속 혹은 과정)과 죽음의 문제는 특수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특수성' 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삶과 죽음에 대한 '의식' 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다른 생물체와는 달리 인간은 살면서 끊임없이 삶과 죽음을 생각하고, 심지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보면 삶과 죽음에 대해 인간만큼 비논리적이고, 부조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생물체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개개인의 인간마다 삶과 죽음이 다르고, 그에 대한 의식 또한 상이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인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잘 표현하고 있는 작가로는 단연 똘스또이(L. Tolstoi)를 꼽을 수 있다. 똘스또이는 어느 작가보다도 인간의 삶과 죽음을 심오하게 예술적으로 형상화하였다. 그의 모든 작품이 삶과 죽음의 테마를 다루고 있지만, 특히 〈세 죽음〉이라는 단편소설에는 이 문제에 대한 그의 사상이 명징하게 드러나 있다. 이 소설에서 똘스또이는 귀족부인과 마부(농부), 나무의 삶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1859년 〈독서문고〉라는 월간지의 1월호에 처음으로 발표된 〈세 죽음〉은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가가 각각의 장에 특별한 제목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이 작품의 각 장은 뚜렷한 주제들을 나타내고 있다. 1장은 귀족부인인 마리야 드리뜨리예브나가 폐결핵에 걸려 고통 받고 있는 모습을 다루고 있고, 2장은 그 집의 마부인 흐베도르 영감의 죽음을, 다시 3장에서는 마리야 드미뜨리예브나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는 나무의 죽음을 다루고 있다.

이 소설에서 똘스또이는 삶과 죽음의 세 가지 유형을 파노라마식으로 독자에게 펼쳐 보인다. 첫째, 지상의 물질적 행복에 젖어 있는 귀족부인의 삶과 죽음이고, 둘째, 이 지상에 아무런 미련이 없는 마부 흐베도르의 삶과 죽음, 셋째, 죽음의 경계를 초월한 나무의 죽음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귀족부인과 마부의 삶과 죽음은 '인간' 의 삶과 죽음으로, '자연' 의 삶과 죽음을 상징하는 나무와 대비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인간이라도 귀족부인과 마부의 삶과 죽음은 매우 대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귀족부인인 마리야 드미뜨리예브나의 삶과 죽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2. 삶에 대한 집착과 죽음의 공포

소설은 안개 낀 어느 가을날 폐결핵에 걸린 마리야 드미뜨리예브나 일행이 마차를 타고 외국으로 치료차 떠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일행은 귀족부인인 남편과 의사, 그녀의 하녀인 마뜨료샤와 마부 등이다.

결국, 귀족부인의 행차는 궂은 날씨와 환자의 몸 상태 때문에 수포로 돌아간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듬해인 봄이 찾아온다. 귀족부인은 사계절에서도 봄에 죽음을 맞이한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다. 귀족부인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봄이라는 시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은 작가의 의도된 설정이다. 소설은 가을에 시작하는데, 가을은 모든 생명이 쇠락하는 시기이며, 이것은 귀족부인의 병세가 위독해지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귀족부인의 죽음은 계절적으로 겨울에 일어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똘스또이는 인간의 죽음을 너무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과 일치시키지 않았다. 그는 귀족부인의 죽음을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인 봄과 연결시키면서 그녀의 죽음이 지니고 있는 역설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귀족부인은 생명이 충만한 시기에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그녀의 삶과 죽음이 자연의 법칙과 일치하지 않았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똘스또이는 귀족부인의 죽음을 묘사하기 전에 마치 그 죽음을 조롱이라도 하듯 봄을 찬연하고 생동감 넘치게 그리고 있다.

귀족부인은 죽는 순간까지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남편에게는 끊임없이 다른 치료를 요구하고, 자신의 손에 입을 맞추는 시누이에게는 "손에 입을 맞추는 건 죽은 사람에게나 하는 거예요"라고 면박을 준다. 그리고 끝내는 "오! 하느님 아버지시여!"를 울부짖으며 임종한다. 똘스또이는 이 장면에서 죽는 순간까지 귀족부인이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심지어 그녀는 기독교도로서 신앙에 기대를 걸어보지만,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일 뿐이다. 그녀는 인간의 죽음을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정하지도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다.

림 뒤쪽에 새로 조성된 묘지에 묻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똘스또이가 마부의 죽음에도 아랑곳없이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일상의 것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병자와 주위사람들이 한 인간의 죽음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묘사된다. 아니, 그들은 흐베도르 영감의 죽음에 대해 지나치게 무관심한 정도이다. 똘스또이는 왜 흐베도르 영감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했을까? 그 의문을 풀 수 있는 단서는 그의 편지에 서술되어 있다. "농부(마부)는 고요하게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독교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농부가 관습적으로 기독교적 예식을 따랐다고 할지라도 그의 종교는 다른 것입니다. 그의 종교는 그가 더불어 살았던 자연입니다. 그는 스스로 나무를 베고, 씨앗을 뿌리고 거두어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양들을 잡고, 다시 양들은 태어납니다. 아이들은 태어나고 노인들은 죽습니다. 그는 귀족부인과는 달리 이것이 결코 거부해본 적이 없는 법칙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직접적으로 단순히 응시할 뿐입니다."

흐베도르 영감의 죽음이 귀족부인의 죽음과 다른 또 하나의 이유는 그가 죽고 나서도 주위사람들이 그를 기억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귀족부인이 죽은 뒤에 그녀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똘스또이는 흐베도르 영감의 삶이 마치 자연의 그것과 같이 끊임없이 새로 태어나고 죽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삶은 자연의 한 현상처럼 늙어 병들어 죽고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같이 다시 다른 사람의 꿈속에서 부활하는 것이다. 흐베도르 영감은 죽기 전에 자신이 신고 있던 장화를 젊은 마부인 쎄료가에게 준다. 쎄료가는 미리부터 흐베도르 영감이 얼마 살지 못할 것을 알고 그의 장화에 눈독을 들이는데, 영감은 젊은 마부에게 한 가지 청을 하면서 자신의 장화를 건네준다. 그것은 자신이 죽으면 무덤에 비석이라도 하나 세워 달라는 부탁이다. 쎄료가는 선뜻 이 제안에 동의하고 영감의 장화를 챙겨 나간다. 그런데 이 조그마한 에피소드는 소설의 마지막에 나오는 나무의 죽음과 교묘하게 연결되어 있다. 똘스또이는 나무의 죽음을 느닷없이 제시하지만 그것은 그의 작품 속에서 마부의 죽음과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연결고리 역할을 쎄료가와 영감의 장화가 하고 있는 것이다.

3. 소박한 삶과 죽음에 대한 관조적 태도

귀족부인의 요란스러운 죽음과는 달리 마부인 흐베도르 영감의 죽음은 조용하다. 그는 이미 두 달째 빼치카에서 내려오지 못할 정도로 늙고 병들어 있다. 주위사람들도 그에게 동정을 보내지만 실제로 그의 병을 고쳐줄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 흐베도르 영감은 별다른 불평을 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죽음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며,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흐베도르 영감은 아무 연고자도 없었다. 그는 먼 타지방 사람이었고, 그가 죽은 뒤 사람들은 산

4. 나무의 삶과 죽음 -자기희생과 영원한 생명

귀족부인과 마부가 죽은 뒤에 귀족부인의 무덤에는 조그마한 석조 기도실이 세워졌다. 그러나 흐베도르 영감이 무덤 위에는 비석은커녕 그가 이승에 살았었다는 유일한 표시로 푸른 풀만이 무성할 뿐이었다. 젊은 마부 쎄료가는 아직 흐베도르 영감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주위 사람들이 그에게 영감과의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느냐고 힐책한다. 그래서 쎄료가는 마지못해 비석을 사겠다고 큰소리치지만 그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다. 이때 옆에 있던 늙은 마부가 참견을 하며 우선 십자가라도 세워주는 것이 어떠냐고 충고를 한다. 그래서 쎄료가는 숲으로 나무를 베러 간다. 나무의 죽음은 이렇게 사사롭게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나무의 죽음은 죽음 같지 않다. 나무의 죽음은 귀족부인이나 마부와 같은 인간의 죽음과 다르다. 똘스또이는 나무의 죽음을 자연의 법칙, 우주의 법칙으로 이해한다.

똘스또이의 시적인 묘사 속에 그려진 나무의 삶과 죽음은 아름답기 그지없다. 평안하게 살고 있던 나무 한 그루가 한 인간의 도끼질에 느닷없이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그러나 나무의 죽음은 귀족부인의 죽음처럼 경박하지도 않고, 마부의 죽음처럼 쓸쓸하지도 않다. 똘스또이는 나무의 죽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나무는 고요하고 성스럽고 아름답게 죽습니다. 나무의 죽음이 아름다운 이유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무엇인가 파괴하지도 않으며, 두려워하거나 아쉬워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똘스또이가 이 작품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고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산 위로는 젖은 잎사귀들이 즐거운 듯이
소곤소곤 속삭였고, 쓰러져 죽어 있는 나무 위로
싱싱한 나무들의 가지들이 의젓하고
장중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

소설의 마지막 문장에서 똘스또이는 죽은 나무를 살아있는 나무와 비교한다. 한 그루의 나무는 죽었지만 다른 나무들은 싱싱하게 가지를 뻗어 힘차게 움직이고 있다. 즉, 자연의 삶과 죽음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과정에 불과하고, 바로 여기에 생명체의 삶과 죽음이 지니고 있는 의미와 본질이 있다는 것을 똘스또이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나무는 죽어서 영혼의 안식을 구하는 한 인간의 묘지 위에 십자가로 세워질 것이다. 이 나무의 십자가 상징은 나무가 죽어 다른 존재의 영혼을 구원하는 표식이 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나무는 죽었지만, 그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이 우주의 다른 존재를 위해 가치있게 쓰이게 되는 것이다.

이 소설은 단순하고 자연적인 인간의 삶 속에 행복과 아름다움, 세계와의 조화가 깃들어 있다고 믿는 똘스또이의 확신이 잘 형상화되어 있다. 똘스또이에 의하면 인간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는 "인간이 죽음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느냐?" 이다. 즉, 그는 인간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그의 삶과 가치를 결정짓는다고 보았다. 삶과 죽음에 대한 똘스또이의 사상은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울림을 전해준다. 우리는 혹시 이 소설에 등장하는 귀족부인처럼 왜 살아야하고, 왜 죽어야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인간은 너무 자신의 개별적인 삶에 집착한 나머지 자연과 우주를 보조하는데 필수적인 생명과 죽음의 법칙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보면 이 작품에 나오는 나무의 죽음은 '인간이 이떻게 살고, 죽어야하는지' 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크게 라디오를 켜고

글_ 오경효 (교육부)

TV의 화려함과 인터넷의 신속함에 밀려 우리의 기억 속에서 멀어지려는 듯했으나, 여전히 우리의 생활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라디오. 누구 하나 알 리 없는 버스 안에서 어색함과 낯설음이 버스의 공기를 점령하려는 그 순간! 라디오는 흘러간 유행가, 혹은 세상 돌아가는 뉴스들로 사람들의 빈틈을 채워준다. 비는 내리고 할 일은 쌓여 있으나 굳이 자겠다고 눈은 감았지만 잠 못 드는 밤, 라디오는 옆에서 재잘재잘 수다 떨며 말 건네주는 친구 같기도 하다. 움직임도 표정도 볼 수 없고 귀로만 느낄 수 있기에 무한한 것을 상상하게 하며, 그 상상이 온전히 자기 것이 되는 세계가 바로 '라디오'라는 세계이다.

오직 현재를 들을 수밖에 없었기에 일어났던 사건 하나가 있다.

ON AIR 1938년 10월, 웰스는 영국의 소설가 H. G. 웰스의 〈우주전쟁〉을 시대와 장소만 현대로 바꾸어 라디오 드라마로 각색했다. 그는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 드라마는 실제 상황이 아니라 픽션이라고 밝혔지만, 대부분의 청취자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뉴저지주의 글로버즈밀 부근에 운석이 떨어져, 1500명이 사망했습니다. 아니, 운석이 아니라 금속 물체입니다..... 가스가 뉴저지를 온통 뒤덮고 있습니다..... 적들은 하늘에서 폭탄을 떨어뜨리며 레이저 광선을 쏘고 있습니다. 화성인이 침공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현실감 있는 '뉴스 속보'에 수천 명의 청취자들이 엄청난 패닉 상태에 빠져들었다. 화성인이 무기를 들고 뉴저지에 착륙해 아메리카 대륙을 공격한다? 그 상황을 시시각각 전하는 확신에 찬 웰스의 어조에 청취자들은 정말로 자신들이 침략당한 것으로 생각했다. 히스테리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사방에서 비명을 질러댔다. 마침내 수많은 사람들이 시골로 피난을 떠났다. 개중에는 공포를 견디다 못해 자살을 시도한 사람도 있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라디오 방송국에 전화문의가 쇄도하여 업무가 마비되었다. 경찰 몇몇이 달려와 프로그램 연출자와 출연자들을 빨리로 피난시켰을 정도다. 이 사건으로 CBS 방송사는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연방통신위원회는 프로그램 방송에 관한 규칙을 만들었다. 신문들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쉽게 속는 미국인'에 관한 기사들을 쏟아냈다.

- 알고 보면 매혹적인 죽음의 역사(기를 마사오) - 자살을 초래한 라디오 방송

TV라면 자막 하나로 쉽게 해결됐을 일, 굳이 자막이 아니라도 보이는 화면의 어설픔 때문에 사실이라고는 믿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것이 라디오의 특징을 가장 절실히 보여주는 비극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런 비극적인 사건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디오이기에 감동을 더했던 순간도 있다.

ON AIR

(song)
이 세상의 부모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윈더풀 윈더풀~
비) 이 노래가 가족의 끊을 지켜가는 우리 아버지들 마음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a) 마음에 힘이 되는 시 하나 노래 하나
(고려생명 기업 PR)

2004년 당시 경제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장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기획된 광고다. 정보가 홍수처럼 흘러넘치는 시대에서 이 라디오 광고를 특별히 기억하는 이유는 TV에서 여러 번 보았을 때와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어머니와 차를 타고 가던 중 라디오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는 어머니의 모습과 노래를 흥얼거릴 만큼 편치만은 않았던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있는 나, 그리고 차안 이라는 좁은 공간. 그래서 흘러나왔던 노래와 내레이션이 마음을 더욱 섬세하게 자극해주는 듯했다.
요즘은 차 안에서도 TV를 시청할 수 있다. 만약 라디오가 아닌 DMB로 이 광고를 만났다면 영상에 눈을 빼앗겨 마음을 느낄 겨를이 있었을지. 잘 모르겠다. 우연히 아들과, 혹은 하루 종일 라디오를 친구 삼아 운전하던 택시기사님, 지친 몸을 이끌고 버스에 몸을 실은 수많은 가장들이 들었다면,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오해를 불러일으킨 적도 있지만 더 큰 감동을 안겨주기도 하는 라디오. 그 세계에 지난 9월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수원시자살예방센터에서 1분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ON AIR

pm. 10:29
(앳된 여학생의 음성이 들린다.)
안녕하세요.
서호중학교 1학년 한지희 입니다.
저는 수원시자살예방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사람지킴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 제가 어떻게 사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너무 버거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그리고 어깨를 살포시 다독여 주는 것.
친구가 외롭지 않도록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답니다.
외로움은 모든 것을 식들게 만듭니다. 식물과 동물 그리고 사람.
살아있는 모든 것은 우리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내민 작은 손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라디오는 대중매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이다.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가까이 다가와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준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우리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당신이 희망이라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매체들이 생겨나고 없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라디오는 언제까지나 우리 삶의 한편에서 속삭이고 있지 않을까?
'힘을, 내라고'

정직해지는 것은 무언가를 믿는 것입니다

영화 '솔로이스트(The Soloist, 2009)'

글_ 이영문 (센터장,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

카르페디엠을 만든 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수원시자살예방센터는 삶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람과 세상에 대한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직업 이상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스스로의 모순에 이끌려가곤 합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장애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이를 돕기 위한 사람의 엇갈리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만과 편견'을 만든 조 라이트 감독이 LA 타임즈 로페즈 기자(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분)와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천재 첼리스트 나다니엘(제이미 폭스 분)의 실제 인연과 관계를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로페즈는 다정한 가족 중심의 삶보다는 늘 열정적으로 일 중심의 생활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저랑 닮은 캐릭터입니다. 아니 주변의 열정적인 많은 분들과 닮아 있습니다. 며리를 다친 후에도 응급실 침대위에 누워 기사를 작성합니다. 정상적인 삶이 분명 아니지요. 그 반대편에는 LA 중심가 베토벤 동상 밑에서 두 줄만 달랑 남은 바이올린을 켜는 나다니엘이 있습니다. 정신분열병을 앓고 난 후, 끊임없는 환청과 불안에 시달리는 노숙인입니다. 두 사람의 우연한 조우를 통해 로페즈는 2005년 4월 '두 줄의 현으로 세상을 소유한 바이올린 연주자'라는 칼럼을 씁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램프 커뮤니티, 스키드 로우거리. 아름다움과 지저분함이 공존하는 도시 LA를 배경으로 아름다운 선율과 지붕 위를 날아다니는 방식의 카메라가 두 사람의 주변을 조명합니다.

그러나 많은 관객들이 생각하듯이, 감동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기존 할리우드 영화들처럼 두 사람의 우정이 싹트고 나다니엘은 행복한 연주자가 된다는 해피엔딩을 성급히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영화는 확실히 다른 할리우드 버전을 지니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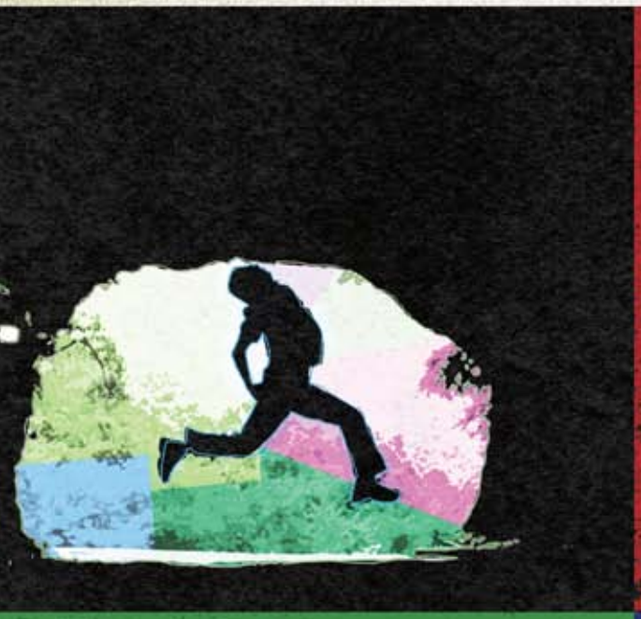
사람을 돕는다는 것에 대한 고민이 여기서 생겨납니다. 흔히 우리는 노숙인, 정신장애인, 신체 장애우들에게 로페즈가 하듯이 아파트를 제공하려고 하고, 그가 가진 예술성을 살리려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생활공동체에 살게 하려는 판에 박힌 도움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나다니엘은 노숙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아파트에 불이 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누가 불을 낸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는 아파트라는 닫힌 공간속에서 환청과 피해망상에 시달린 나쁜 기억이 있습니다. 1970년에 입학한 줄리어드 음대에서는 인종차별에 시달리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학업중단의 쓰라린 과거가 있습니다. 애초부터 나다니엘에게 세상의 도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관심, 배움, 사랑이 아닌 혼자 내버려둠, 가르치지 말 것과 적당한 거리두기를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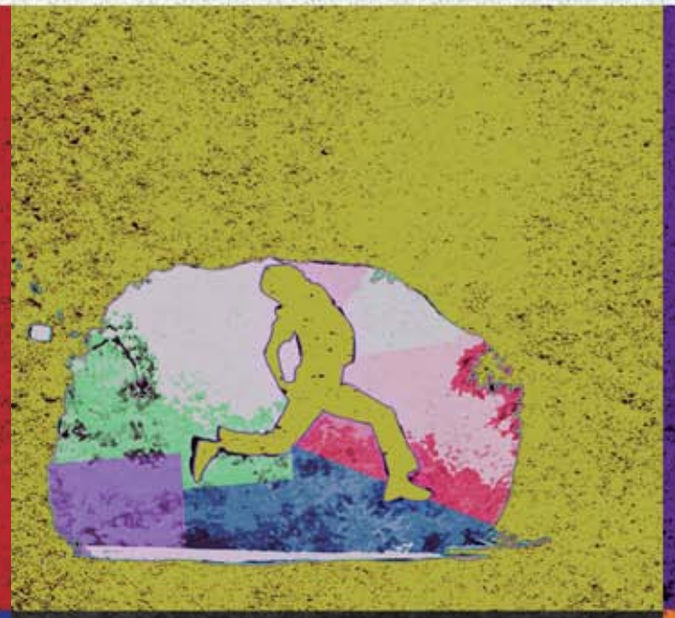
이 영화에는 장애와 질서를 중심으로 두 사람의 삶이 반대로 그려집니다. 정신질환을 앓지는 않았지만, 나다니엘보다 더 혼란스런 정신세계를 살아가는 로페즈 기자의 삶과 비록 장애를 앓고는 있지만 혼잡한 LA거리에서 베토벤과 교감하며 자신의 영역을 자유롭게 살아가려는 나다니엘의 생활이 대립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강제로 아파트에 살게 하려는 로페즈에게 나다니엘이 소리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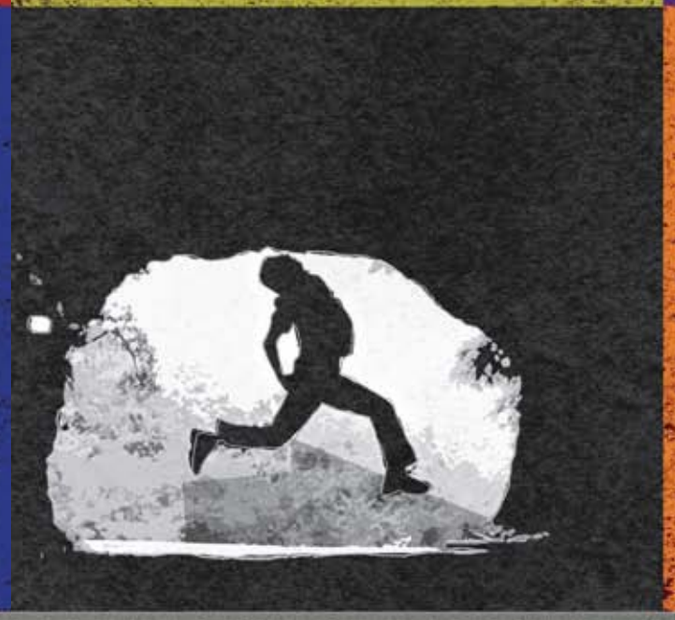
> 난 내 스스로 살아.
> 당신도 이 도시도 필요 없어.
> 나는 당신과 이 도시를 경멸해.
> 너희들 마음대로
> 나를 정신분열병으로 정의하지마.

로페즈는 나다니엘을 도울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다니엘에게 그것은 진정한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상태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지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제 머릿속에는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지나갔습니다. 모두 다 잘 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누군가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공감대가 아닌 두 사람의 공감대가 함께 존재하려면, 각자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일그러진 것은 나다니엘이 믿은 만큼 로페즈가 나다니엘을 믿지 않은 결과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직해지는 것은 무언가를 믿는 것입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 없이 그저 믿는 것이지요. 영화의 마지막,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 나란히 앉아 베토벤 교향곡을 듣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처음으로 나다니엘이 활짝 웃는 숏이 보입니다. 함께 무엇을 한다는 것, 어쩌면 이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노력일지도 모릅니다.







늘 무기력한 사람에게도 자기만의 이유가 있다. 날씨가 우중충해서, 라디오에서 슬픈 노래가 흘러나와서, 옆집 친구가 성적이 더 좋아서, 어젯밤 좋아하는 드라마를 못 봐서, 학교 가는 길 버스를 잘못 타 지각을 해서. 반대로, 기분 좋을 이유도 셀 수 없이 많다. 좋은 전시회를 다녀와서, 셀카를 잘 찍어서, 집에서 라면을 끓였는데 면발이 아주 쥑여서. 그런데 생각만 바꾸면 행복해진다 분발하라, 하고 글을 끝맺으면 무책임하니까.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일을 몇 가지 제안하겠다. 자, 따라오시라~

뭐라도 하면 안 우울해!

글_ 권영준 (아주의대 3, 자원봉사자)

좋구나

≪ 가장 가까운 바다에 가기

가슴이 답답할 때는 바다로 가자! 혼자 백사장을 걸어도 좋고, 친구와 함께 가도 좋다. 학생이니까 술 아닌 콜라에 조개구이 먹는 걸 추천한다.

우와~~아아아

생소한 문화공연 관람하기 ≫

뮤지컬, 합창, 오케스트라 연주 등 정신을 쏙 빼 놓을 공연을 보러 가자. 군것질 몇 번 할 돈을 아껴서 나들이 하는 "문화 생활" 나도 한번 해 보자. 찾아보면 무료 또는 비싸지 않은 금액으로 구경 할 수 있는 공연도 간간이 있다.

나, 고냥이

심봤다~

≪ 만화방으로 잠수

어디 멀리 놀러 가기 귀찮을 때는 그냥 집 앞 만화방에 가서 죽치고 앉아 거기서 파는 양은냄비 라면 먹으며 만화책 보는 게 제일 좋다. 보고 나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슬램덩크"나, 요즘 장안의 화제인 "가정교사 히트맨 리본", 전국의 맛집과 별미를 다 모아놓은 "식객" 등 읽을 거리 천지다. 깊게 빠질 경우 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요망. ㅋㅋ

집에서 꼼짝 않고 영화 보기 ≫

집에서 아이스크림 먹으며 텔레비전 보면 이 세상이 내것 같다. 집 앞 비디오 가게에 가서 영화 한편씩 빌려 보자. 미스 리틀 선샤인, 과속 스캔들 등 최근 영화도 좋고, 고전 명작 라이언 킹, 죽은 시인의 사회, 개 같은 내 인생 등도 참 좋다.

낢이야기

얏!

인터넷 웹툰을 보며 에너지 충전 팍 팍 ≫

요즘 인터넷에는 재능 있는 작가들의 기발한 작품들이 참 많다. 루나파크, 낢 이야기, 입시명문사립 정글고등학교, 마음의 소리 등 삶에 대한 통찰력이 넘치는 웹툰 작가들의 이야기에는 재미와 감동! 둘 다 있다.

오호라!

≪ 미술관 옆 동물원

어린이 날을 피해서 화창한 날 동물원에 가자. 한가로운 그곳에서 본능에 충실한 동물들에게 이성을 갖고 사는 삶이 얼마나 힘겨운지에 대해 투정을 부릴 수도 있고, 친구와 함께라면 소중한 추억 하나를 더할 수 있다.

얼씨구

재래시장 탐방하기 ≫

'있어야 할 건 다 있고, 없을 건 없는' 활기찬 재래시장에 가본 적 있나? 푸근한 인심과 눈만 돌리면 보이는 음식들은 기분을 좋게 하기에 충분하다. 단, '활기찬' 재래시장이어야 함을 명심하자. 좌판이 거의 없는 사라지기 직전의 곳이라면 더 우울해질 테니.

쉿! 그녀의 일기

글_ 김계은 (영생고 2, 자원봉사자)

09.11.1(일) 맑다가 흐리다가 부슬비

어제의 우울함은 오늘 조금 풀린 것 같다. 어제의 우울한 음악에서 벗어나 오늘은 조금 경쾌한 음악을 들었다. 오늘은 약속을 두 개나 잡았다. 엘리베이터에 달린 거울을 보면서 여러 가지 표정을 지어보고,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도 하고.. 씩 웃어보기도 했다. 친구가 저번에 싸고 예쁜 카페를 발견했다고 한다. 그러니 커피도 마시면서 같이 공부하자는 약속을 했는데, 금전적인 상황으로 자주는 못가지만 가끔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평소 같았으면 "부르주아 같은 인간" 이라고 하면서 가난한 학생의 고달픔에 대해 한 시간 이상 강의를 할 자신이 있었지만 오랜만인 친구와의 만남과, 새로운 카페가 기대가 되어 만나기도 전에 마음이 붕 떠있는 느낌이다. 이러는 걸 보면 어린아이 같지만 가끔 있는 일이라 역시 기대가 된다. 그래서 "가끔은 일상적인 것에서 벗어나 즐겨야 겠다" 는 생각이 든다.

가끔은 일탈을

09.11.2(월) 흐림

고민거리…

신종 플루 때문인지 이번 주에도 일찍 학교가 끝났다. 어제 비가 온 탓인지 갑자기 기온이 떨어졌다. 저번 주에도 일찍 학교가 끝이나 좋기도 했지만 하던 걸 안하니 역시나 불안하다.
저녁을 간단하게 먹고 학원에 갔는데 친구가 "나 우울해. 재밌는 얘기 해줘."라고 하면서 내 팔을 끌었다.
말주변이 없는 나는 잠깐 고민하다가 예전에 캠프 선생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역시나 썰렁했다. 그 친구는 가끔 자신의 기분과 고민을 내게 상담한다.
재미있는 일이라든가 부모님과의 갈등이라든가.
그 친구는 시인이 되고 싶어 하는데 부모님은 반대하시는 모양이다. 나는 그러면 나 나름대로의 조언을 해준다. 나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때의 고민은 대체로 비슷하다.
이성이나, 성적관리, 친구, 장래희망, 불안, 페르소나…….
그 외에도 있지만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으로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친구로서도 기분이 좋고, 내게도 위로가 되는 것 같다.

고민! 고민!

09.11.5(목) 구름 꼈지만 포근하게 맑음

가끔은 빈둥거려도 괜찮아

학교에 갔다 와서 기분이 참 묘했다. 어중간한 느낌이었다.
우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들떠있지도 않았다. 그래프로 그린다면 딱 중간지점은 아니겠지만 거의 중간지점. 오히려 차분한 기분이 들었다.
평소 나의 기분이다. 높낮이가 어정쩡하고 애매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기분이다. 뭔가 하고 싶은 것도, 특별히 싫은 것도 없다.
이런 날에는 빈둥거리면서 노는 게 제일이다. 이불 펴 놓고 길게 기지개를 폈다.
졸린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예전에 보았던 연극을 기억했다.
여주인공을 생각하다가 대사를 곱씹는다. "눈이 녹으면 봄이 와요."
제목조차 기억하지 않는 연극에서 나는 오직 그 대사만을 기억하고 있다.
멋있는 말도 아니었는데.....
"눈이 녹으면 봄이 와요.", "눈이 녹으면 봄이 와요." 소리 내서 말해본다.

09.11.6(금) 화창했던 맑은 날

오늘은 친구에게 편지를 쓰려고 한다.
벌써 햇수로만 8년이 된 친구. 군포로 전학을 간 후로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다.
내 친구 중에서 제일 오래 되었고, 또 그만큼 애틋한 친구.
저번에 편지를 받았는데 이제야 답장을 쓰게 되었다.
얼굴을 본지 얼마나 되었는지 그립다.
그리고 마음이 조금 무거운 날에는 이렇게 편지를 쓰면 한결 나아지는 것을 느낀다.
제대로 내 마음을 이야기하면 좋은데 역시 조금 용기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친구가 나를 의지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친구니까.
그런데 고백이란 것은 역시 쉽지는 않다. 힘든 것이든 고민이든.
하지만 이렇게 간단히 안부를 묻고,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시험이나 학교이야기를 잔뜩 하면 시원한 느낌을 받는다.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을 때 나는 삼천포가 주 내용인 편지를 써 내려간다.
그러면 주체할 수 없었던 우울도 가라앉는 느낌이 든다.

친구에게 편지를

2년 전부터 하이킥의 열풍은 대단했다. ≪거침없이 하이킥≫에 이어 ≪지붕 뚫고 하이킥≫까지! 인기 이유는 제작진이 가진 재미에 대한 탁월한 안목과 출연진의 리얼한 연기 때문이었겠지만, 제목 또한 한 몫 단단히 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제목이 ≪거침없이 니킥≫이었다면? ≪지붕 뚫고 엎어치기≫였다면? 지금 피식피식 웃고 있을 여러분의 얼굴이 떠오른다.
말만 들어도 통쾌하고 신나는 느낌을 주는 '하이킥!' 도대체 어디서 쓰는 말일까?

글_ 오경효 (교육부)

'땡~'하고 울리는 공 소리(오타가 아니다. 공 맞다; 각 라운드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종소리로 숨이 턱에 차오를 때까지 줄넘기를 하고 있었다면 구원 같은)를 따라 한 체육관으로 들어갔다. 그 곳엔 우리 질문에 거침없이 답을 알려줄 멋진 선생님이 있었다.

이름 : 이민성
나이 : 20살
취미 : 킥복싱
특기 : 태권도

킥복싱의 매력이 무엇인가요?
심장이 터질 만큼 힘들다는 것!

어떤 기술을 할 때 가장 마음이 후련~해지나요?
물론 멋진 기술을 쓸 때도 속이 후련하지만 준비운동으로 줄넘기를 할 때, 샌드백을 힘껏 손이나 발로 칠 때, 이 모든 것들이 제 맘을 가볍게 해주는 것 같아요.

킥복싱의 기본자세 좀 말해주세요.
태권도를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처음 킥복싱을 할 당시 주먹기술이나 발차기를 태권도 하는 것처럼 했는데, 태권도와 킥복싱의 자세는 많이 다릅니다.
킥복싱은 주먹을 아주 가볍게 쥡니다. 주먹의 위치는 눈과 턱 사이에 두고 얼굴에 바짝 붙이진 않습니다. 복싱자세와 비슷하지만 킥복싱에는 발 공격이 있기 때문에 주먹의 위치가 너무 얼굴 가까이 있으면, 발차기 공격이 들어왔을 때 방어가 힘들게 되죠. 그래서 얼굴에서 약간의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방어 자세에서 주먹을 지를 때도 지른다는 느낌이 아니라 포크로 고기를 찍듯이 끊어 친다는 것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킥복싱은 몸을 가볍게 하고 몸에 기본적인 힘 외에는 힘을 줄여서 몸이 경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킥복싱의 기본 주먹 기술 중 하나인 원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먹을 쥔다는 것! 말씀드렸죠?~! 왼손을 가볍게 뻗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먹이 목표물에 도달하는 순간 힘을 주는 것입니다. 왼손이 돌아오면 바로 오른손을 뻗어 줍니다. 이것이 원투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왼손이 나갈 때는 오른손이 턱을 가드 해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른손이 나갈 때도 마찬가지구요!

킥복싱의 꽃은 뭐니뭐니해도 킥kick일 텐데요, 킥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킥의 기본이 되는 기술로는 발바닥이나 앞 축으로 상대의 복부를 주로 가격하는 프론트킥, 상대의 하체부위를 가격하는 것으로 위력이 즉각 나타나지 않으나 시간이 지나고 가격 횟수가 늘어감에 따라 통증이 배가 되는 로우킥, 그리고 미들킥은 상대선수의 몸통부위를 주가격 목표로 하는 발차기 공격으로 무릎 이하의 경골(정강이뼈) 부위를 사용해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이킥은 얼굴 및 목덜미를 향해 발차기를 하는 것으로 발차기 공격 중 KO확률이 가장 큰 기술입니다. 하이킥의 방법은 선수들의 성향에 따라 걷어 올리듯 차는 경우와 휘어 차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때때로 걷어 올려 차는 듯하다 위에서 감아 내리는 '브라질리언킥' 과 같은 방법을 구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니킥은 대퇴부와 복부, 얼굴 등을 무릎으로 차는 기술입니다.

〈킥의 다섯 가지 종류〉

킥복싱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걸 안 물어 봤네요. 킥복싱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힘들다.. 다른 생각은 할 겨를이 없어요.

킥복싱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나요?
킥복싱을 싸움을 위해서 배우는 친구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킥복싱도 다른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스포츠입니다. 모든 운동이 그렇듯 자신을 단련하고 강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혹은 우위에 서기 위해서 배운다면 자신을 위해서도 좋지 않겠죠.

마지막으로 킥복싱을 시작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혹은, 인생의 선배로서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오늘 킥복싱의 1/1000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 아쉽네요. 처음 살을 빼기 위해 시작한 킥복싱이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힘듭니다. 힘든 것은 무조건 싫고 안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한 건 아닌 것처럼요. 무슨 말을 하는지 · · · 꼭 킥복싱이 아니라도 무엇이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무언가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커트 코베인의 그림자, 코트니 러브

글_ 서청희 (상담부)

누군가의 불같은 삶은 주변의 남아 있는 것을 오래도록 태운다는 생각이 든다.

1990년대에 서태지가 한국의 대중음악을 흔들어 놓았다면, 미국에서는 커트 도널드 코베인이 팝에서 얼터너티브의 대중화로 판도를 바꾸어 놓았다.

그는 1989년 록밴드 너바나를 결성하여 첫 앨범 〈Bleach〉로 천재적 음악성을 인정받았고 2집 〈Nevermind〉는 마이클 잭슨을 밀어내고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며 3백만 장 이상의 음반 판매기록을 세웠다. 한창 주가를 올리던 1992년 2월 24일, 그는 코트니 미셸 해리슨이라는 록밴드 여가수와 와이키키 해변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그녀의 사생활은 남편 코베인을 만나기 전부터 복잡하고 문란했지만 자신의 밴드 'Hole'을 결성해 1991년 〈Pretty on the inside〉라는 음반을 내고 본격적인 가수 활동을 해나가며 음악성을 인정받고 안정적인 삶을 찾는 듯 했다. 하지만 재능 있는 록가수 그리고 천재적 가수의 아내로서의 생활도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 1994년 그녀의 두 번째 앨범인 〈Live through this〉의 발표와 남편의 죽음, 그리고 밴드 멤버 중 한 명의 죽음이 동시에 그녀를 덮쳐왔기 때문이다. 〈Live through this〉에는 남편 코베인의 손길이 음반 전체에 스며있어 너바나의 음악과 매우 흡사하다는 평을 받았고 그녀의 전체 음반 중에 가장 괜찮은 음악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작품을 인정받고 성취감을 맛보기에는 너무 큰 일을 함께 겪어야 했다. 그녀의 남편과 동료의 죽음이 자살이건 그녀의 소행이건 간에 그녀가 받았을 충격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다.

스물 일곱 꽃같은 나이에 커트 코베인은 유서에 씌인 대로 점점 소멸되는 것보다 한꺼번에 타버리는 쪽을 선택하며 2살된 딸과 아내, 그를 사랑한 수많은 팬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떠나버렸다. 누군가 생을 마감하며 남기는 유서는 적어도 거짓은 없는 이야기일 것 같다. 그는 유서에서 음악에 대한 더 이상의 열정 없이 공연을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가식적인 태도로 부와 명예를 얻는 것과 인간 자체에 대한 불신과 증오가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불가능하게 했음을 말하고 있다. 순수한 열정과 예술성으로 지켜오던 삶의 의미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은 의미 없게 되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어떤 순간 속에서 그의 아내는 그에게 삶의 의미였을 것이다. 사랑, 그것은 누구나 걸리고 싶은 마술이고 현실의 도피처일 것이다. 그는 사랑했던 아내와 그의 어린 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며 유서를 마친다. 특히 마지막에 'For her life, which will be so much happier without me, I LOVE YOU! I LOVE YOU!' 라고 쓰며 글을 줄인다. 죽는 순간까지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짧은 결혼 생활 동안에 여러 설이 난무하기도 했다. 그와의 짧은 결혼 생활로 그녀는 딸과 너바나의 저작권을 얻어 부유하게 살고 있지만 잘 사는 것 같지는 않다. 술과 마약, 여러 번의 성형수술과 다이어트, 콘서트에서의 기이한 행동과 토플리스 사진 등으로 세간의 이목이 곱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법적 양육권을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빼앗기고 너바나 저작권과 관련되어 피소를 당하기도 했다. 아마도 그녀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사랑도 사람도 너무 유한한 가치로 여겨진다. 요즘 유행하는 광고 '때문에' 라는 말은 너무 쉽게 결론을 지어버리는 우리 삶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사랑때문에 살고, 사랑 때문에 죽고, 너 때문에 살고, 너 때문에 죽는다는 말은 우리 복잡하고 긴 인생을 빠르고 쉬운 현대적 라이프 스타일처럼 단숨에 매듭지어 원인과 결과를 부여하는 말은 아닐런지.

어쨌든 코트니 러브의 삶이 누군가의 죽음 때문에 지금과 같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녀의 삶 때문에 누군가 자살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들 삶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인 것만은 분명하다. 누구만의 책임도 잘못도 아닌 우리들 모두의 몫일 수 있다는 것이고, 역시 우리 모두 코트니 러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자신 뿐 아니라 그 누군가들에게 무엇이 될 것인지 잘 모르고 우리는 선택과 결정을 하곤 한다. 우울감 속에서 혹은 좌절과 분노 속에서 한 치 앞도 예상하지 못하고 내린 선택과 결정은 결국 나에게도 그리고 내게 의미 있던 수많은 존재들에게도 나의 그림자를 드리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인생은 도박과 같아. 한 판의 게임인 게지. 게임에선 그 누구도 승리할 수 없단 말이야. 승자도 패자도 없단 뜻이야. 게임에서의 본질적인 승리자는 게임 자체인 거야. 아무도 게임에서 승리자가 될 순 없어, 아무도.

- 김경욱의 '누가 커트 코베인을 죽였는가' 중에서

너의 얘길 들려줘!

안녕하세요 .
요즘 그냥 짜증이 나고 죽고 싶네요...
집에선 엄마랑 아빠는 매일 동생편만 들어주고
자꾸 그러니까 동생은 내말은 안 듣고 욕도 하고
나한테 짜증인내요.
솔직히 비밀 같은 것도 좀 있구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엄만 맨날 왜 그러냐며 이런하다고 그러구요,
용돈 날짜도 정해져 있는데 안줄 때가 더 많고
동생이 울면 다가가서 왜 그러냐고 차근차근 물어보는데 제가
울면 왜 또 울어 하면서 짜증안내고 더 울면
혼내요.. 너무 슬프고 죽고 싶어요. 또 동생은 옷도
사달라는거 다 해주고 그러는데 나는 몇 년째 같은 옷만 입고
있어서 바지랑 옷도 다 짧아졌어요.
신발도 작년에 샀는데 엄마가 시장에서 사왔는데 이젠 낡고 닳
아서 미끄러워서 바꿔달라 했는데 또 혼났어요.
저는 동생이랑 너무 차이가나요. 제가 태어날땐 할머니 손에서
자랐대요. 근데 동생은 엄마손 밑에서
자랐대요.나는 엄마 손에 키워지지 않아서 그런가요..
가끔 자살 하려고 옥상 가서 울타리에 앉아있는데요,
그래도 내 엄마고 아빤데 정이 들어서 매일 울다가
그냥 내려와요.
인터넷에서 많은 위로 글들을 봐도 그 순간만 짜증이
적어지지 다시 또 죽고 싶고 눈물도 막 나구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쌓이고..
전 정말 어떻게 해야좋죠...너무 괴로워요.

창가에 비치는 세상이 고요하게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우리 마음도 가끔은 이렇게 평화로울 때가 있습니다.
지현(가명)양이 요즈음 마음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죽고 싶고 눈물 나고... 부모님이 지현양의 마음도 몰라주고 동생편만 드니 마음이 많이 상하고 아팠나 봅니다. 동생이 어려서 부모님이 조금 더 신경써주시거나 할 수 있겠지만, 지현양에게 욕도 하는 동생을 부모님이 아시고 그냥 두시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아마 지현양이 이렇게 힘들고 슬퍼하는 걸 부모님이 아신다면 지금처럼 행동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울기만 하고 맘속의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어요. 조금 어렵겠지만 지현양이 마음속에 있지만 못한 말들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내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눈물이 많아서 화가 나거나 슬픈 상황에서는 하고 싶은 말을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편지를 쓰고 나중에 맘이 조금 진정될 때 이야기를 했어요.
지현양,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모님이라고 해도 지현양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친구들과 동생에게도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화가 나는 일이나 억울한 일을 혼자 참고 울며 삭히는 것도 때론 도움이 되지만, 대부분 마음속에 갇혀 있는 것은 독이 되어 우리 맘을 더욱 약하고 아프게 해요. 그러니 지금처럼 용기내서 마음을 이야기하세요. 힘들고 상황이 어렵더라도 죽어서 해결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아직 어린 지현양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며 문제를 해결해 가고 커가는 것이 맞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경험을 통해 지혜롭게 커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일을 해 나가면 됩니다. 지금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맘 아프거나 힘들 때 이야기 나눌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학원 때문에 정말 미칠 것 같아요. 학원하고 과외
를 하는데 정말 죽고 싶고 실력이 떨어지면
혼날것 같아 조마조마하고 가끔씩은 이유 없이
배가 아프거나 어지럽고 공부가 하기 싫어 일리고...지금도
일려있죠...죽고 싶은데...솔직히 저는 일부러 무단을 해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근데 죽지도 못하고 발에 금만 가고
아프기만...휴~ 정말 죽고 싶지만 죽으면 가족, 친구 이렇게
있어서 죽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누구보고 죽여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전 오늘 학교에서 자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공부로
자살이 심하데요. 저랑 같은 경우죠 . 죽고 싶지만 두렵습니다.
부모님이 항상 말씀 하십니다. 죽을 용기가 있으면 살라고.
전 죽을 용기는 있지만 두렵고..살기 싫어요.
어떡하죠? ㅜㅜ

주말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님이 이렇게 힘들어 하고 있다는 걸 주변이나 부모님이 아시는지 안타깝습니다. 많은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학원에도 가야하고 성적이 떨어지면 안될 것 같고, 심리적으로 받는 압박이 신체증상으로도 나타나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더욱 걱정이 되는 것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자살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죽고 싶은 마음보다는 힘들고 지쳐가는 마음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런 상황을 혼자서는 참고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이곳에 글을 쓰신 용기를 내어 부모님과 상담선생님, 주변에 믿음이 가는 어른에게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 어떤 좋은 것도 님의 생명과 존재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부모님도 그것을 아시지만 아마도 님이 잘 해낼 거라 믿고 계시면서 이렇게 힘들 거라는 상상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 부모님께 진솔하게 도움을 구하세요.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아셔야 합니다. 님의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는 걸 알지만 그렇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인생과 수많은 변화 가능성, 그리고 님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을 생각할 때 너무 조급하고 아쉬운 결정입니다. 시간이 흘러 님은 인생을 스스로 선택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나이를 먹고, 인생을 오래 살아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내는 힘든 시간들, 지금 하는 어려운 고민들이 님을 더 많이 자라게 하고 강하게 할 것이라는 걸 기억해주세요. 그렇게 님이 성장하는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너무 많이 힘들지 않도록 님 스스로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상을 주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자신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해주세요. 힘들 때 이렇게 표현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중학교1학년 여자아이입니다.
친구가 있긴 하지만..애들이 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장난치는 것을 좋아하는데
애들은 그것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다른 애들이 제 뒷담을 깐 적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할 때마다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치려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도 장난으로 받아들이고...그것 때문에 자살하려고 한 적도
있었어요. 성적도 문제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위권이니깐...
예쁘지도, 귀엽지도 않는데..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주일의 시작을 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친구들과 장난도 잘 치고 재미있게 지내다가도 누군가 상처받았다고 하면 미안해지면서 조금 화도 나고 섭섭한 마음도 생길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모두 성격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친구관계에서도 서로에 대해 기대하고 원하는 모습이 달라서 힘든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도 친구들이 님을 싫어한다기 보다는 자신과 다른 모습에 당황하거나 불편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님의 밝은 모습을 모두 좋아하고 부러워했기 때문에 친구관계를 이어온 거라 생각해봐요.
친구만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나쁜 점도 받아주고 감싸주길 기대하면서도, 자신은 친구에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로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 위한 첫 연습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주려는 마음입니다. 님도 친구들도 그런 과정을 겪으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남을 배려하는 것을 배우시는 중이라 생각합니다. 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니 너무 자책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고민이신가 봐요. 하지만 아직 중1이고 열심히 하면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님이 생각하시기에 예쁘고 귀엽지 않더라도 님은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생긴 것만으로 사람이 판단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인상은 외모가 영향을 많이 미치겠지만, 그 사람의 생각과 진심, 가치관과 건강한 소통방식, 자신과 일에 대한 사랑과 열정,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 등 많은 것들이 그 사람을 설명하게 됩니다.
지금 님이 하실 것은 님이 잘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찾아내고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님이 성장하고 강해지고 멋진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을 스스로 기대하고 발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힘들 때면 이렇게 누군가에게 힘든 마음을 표현하고 위로받고 다시 용기를 얻고.. 님은 잘 하고 계십니다.
조금씩 조금씩 자라는 님을 응원합니다.

여기는 청소년인터넷방송국입니다

'어른들의 얘기는 따분해',
'재밌는 것 좀 없?',
이런 생각이 든연?!
른 친구들의 얘기도 듣고,
애니메이션, 디오, UCC 등
내 끼에 날개를 달 수 있는 곳!
지역의 청소년인터넷방송국으로 ~!

영화할할

www.suwonyouth.tv

TAKE 1
'움직이는 모든 것에는 생명이 있다'
인기영상은 메인화면에
한달간 게시돼.
오예~!

지금 찍고 있는 SCENE은 8mm카메라를 이용해
주인공 얼굴을 클로즈업 하려고해.
오디오와 모든 세팅 점검 후
중~~~~~업!
액~션!

나? 감독 돈보스코!
난 말이지 스케일이 한 수 위지.
영상제 뿐만 아니라 악동적인 락 페스티벌도 하거든.
그래서 락을 주제로 한 영화를 만들어 보려고
계획 중이지. 액션!

www.dybs.or.kr

HELP NETWORK

HELP NETWORK

HELP NETWORK

뉴스 딱딱

KYBC 한국청소년방송
www.kybc.org
긴급속보입니다. 미니 다큐멘터리 <푸른 아이>를
통해 영상편지를 부칠 수 있다는군요.
받는 누군가에겐 정말 깜짝 선물이 되겠는데요?
마음을 전하는 특별한 방법을 찾는다면
'클릭!'

스스로넷 뉴스
www.ssronews.com
최근 뉴스가 딱딱하다 느끼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하겠삼.
나 같이 딱딱하지 않은
방송을 나 말고 내 친구도 하고
다른 친구들도 해여
유행처럼 번지고 있삼!
나도 이제 시작했으니
곧 인기스타가 되겠삼.

읽어봐~
진짜 웃겨 ^0^

미래의~홍 입니다.

오늘 아주 재밌는 사연이 올라와 있네요. 한번 볼까요?
바야흐로 얼마 안 된 일입니다. 방학이 되어 거실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더랬죠.
그런데 엄마가 다가와 나를 노려보고 그럼 나는 자연히
고개가 숙여지고 다시 노려보고, 고개가 숙여지고..
그러던 중 친구에게서 온 전화 한통에 말만으로도
흥미진진해 따라갔어요. 그곳은 뉴스를 진행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할수록 너무 재밌는 거예요.
PD 아저씨에게 조심스레 저 계속 하고 싶은데 그래도 되냐고
물었어요. PD 아저씨.. 가능하다며 미리 전화해서 신청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아싸~하는 기분으로 하다 보니
어느새 밤이 되었어요. 슬금슬금 집 문을 열었는데
끼익 - 아! 이런 엄마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쿵 쾅 쿵 쾅
심장박동 소리는 쉴 새 없이 뛰고 어두운 그림자....
엄마였어요. 엄마는 독수리의 눈보다 매섭게 노려보며
심문했지만 방송국에서의 이야기를 하니 엄마가 도리어
잘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는 방학이어서 방에만 있는
제가 맘에 안 들었다며 좋은 경험한 것을 칭찬하셨어요!
여러분도 도전해 보세요.
이 뉴스를 진행하는 곳은 강원도 청소년인터넷방송국
www.gibc.co.kr 에요.

글_ 홍달님 (남서울대 3, 자원봉사자)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에서는
매년 세계자살의 날(9월 10일)을 기념하여
청소년들이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고
건강한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Love Yourself 자살예방 표어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누 가? 수원관내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누구나!

언 제?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일 년에 딱 한번 오는 찬스! 놓치지 마시길~
작품 접수기간은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031-228-3279

어디서? 주최/수원시, 주관/수원시자살예방센터

무엇을? 〈자살예방, 생명사랑〉에 관한 주제로~ 구체적인 주제는 **요~기**를 참고
-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실천하는 내용
-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하자는 내용
- 자살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내용
- 자살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홍보하는 내용

숨겨두기엔 너무너무 아까운 빵빵 터지는
너의 목숙 대박 같은 아이디어를 뽐내봐!
실력도 자랑하고 상품도 받고..
꿩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동전 줍는~
일석 이조의 찬스 찬스 찬스!!!!

어떻게? 표어: 32자 이내(원고지 또는 A4용지)로 자유롭게 작성~
포스터: 4절지 켄트지(39.5cm*54.5cm)에 수채화물감 또는 포스터칼라로 표현

왜? 청소년들에게 글과 그림을 통해 자유롭게 생명사랑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실천할 수 있게 하려고~ 알면서~

아참! 요게 빠지면 섭섭하지잉~ 공모전의 꽃! 바로바로 시상내역!

- 수원시장상 (표어, 포스터 각 1점씩)
- 수원교육장상 (표어, 포스터 각 1점씩)
- 경기방송사장상(표어, 포스터 각 1점씩)
- 수원시자살예방센터장상 (표어, 포스터 각 1점씩)
- 장려상 (표어, 포스터 각 5점씩)
- 입선(표어, 포스터 각 5점씩)

참품은 그때그때 달라~요^^

우리동네 이야기

우리동네 주식회사는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함께 일하고, 같이 나누는 희망의 지역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우리동네 주식회사는
우리동네커피집과 우리동네희망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커피집에서는 매장 운영과 함께
커피집 메뉴 교육과 창업 컨설팅을 합니다.

우리동네희망학원은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 산만한 아이,
충동조절이 안되는 아이, 지적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 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학원입니다.

우리동네로 놀러 오세요!
커피집 031-214-7584
학 원 031-212-0220

우리동네 주식회사는 청소년자살예방홍보지 카르페디엠2009와 함께 합니다.

Carpe Diem 2009